

2024 5·18문학상 신인상 소설 부문 심사평

2024년 5·18문학상 신인상 소설 부문 응모작들은 내용 면에서나 형식 면에서나 다채로웠다. 특별한 점은 5·18 관련 소재와 더불어 ‘민주 · 인권 · 평화’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 다수 눈에 띄었다는 점이다. 5·18정신과 5·18문학이 시대에 맞게 그 의미와 외견을 확장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수상 대상으로 논의된 작품은 「조금만 기다려요」, 「노래가 되었다」, 「공무도하가」 이상 세 편이었다. 세 작품 중 분명한 우위를 점하는 작품이 없어 심사위원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요」는 이스라엘인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한국인(광주출신) 어머니와 혼혈인 딸을 대상으로 한 삼대 가족 소설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속에 5·18문제를 섞으면서 마지막에 딸이 정체성을 찾아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내용이다. 「노래가 되었다」는 민중가요 ‘들불’을 의인화한 작품으로 설정 자체가 특별했고, 7~80년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상을 서정적이면서 안정적으로 풀어냈다. 「공무도하가」는 5·18 당시 소식이 끊긴 목포 경찰서장 남편을 찾아 강원도 원주에서 내려온 아내의 시선을 통해 목포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두 심사위원은 5·18문학의 확장성 측면에 무게를 두었고, 당선작으로 「조금만 기다려요」를 선정하는데 합의했다. 「조금만 기다려요」는 딸 ‘릴리 수 톨레도’와 어머니 ‘박수연’의 교차전개식 구성 방식으로 쓰였다. 구성이 다소 단조로운 단점에도 불구하고, 5·18문학의 배경을 넓혔다는 점에 점수를 부여했다. 수상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5·18문학상 신인상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작품들을 낳아 주기를 바란다.

2024 5·18문학상 신인상 소설 부문 심사위원

이 진, 손병현